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2.22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9일 뉴욕증시는 미 자동차업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 부각으로 상승탄력에 제약을 받은 가운데 ‘쿼드라플 위칭’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혼조 마감.

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5.88p(0.3%) 하락하며 8,579.11에 장을 마감. 17개 종목이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씨티그룹이 5.5% 떨어지며 최대 낙폭을 나타냄.

GM과 포드는 자동차업계 구제방안 소식에 각각 22.7%, 3.9% 급등 마감.

S&P500 지수는 전일대비 2.60p(0.29%) 상승한 885.28을 기록.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11.95p(0.77%) 오른 1,552.37을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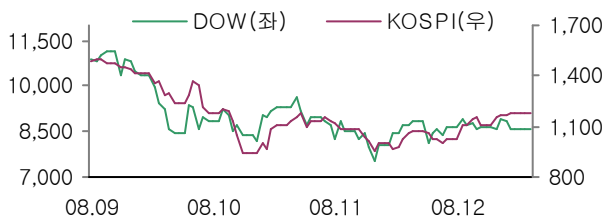
이날 증시는 미 자동차업계 구제안 소식으로 상승출발 하였으나 지수 및 종목의 선물, 옵션 만기가 겹친 ‘쿼드라플 위칭’으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혼조 마감.

이날 개장전 조지 부시 대통령은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하는 174억달러 규모의 구제안을 발표하며 GM과 포드의 주가가 급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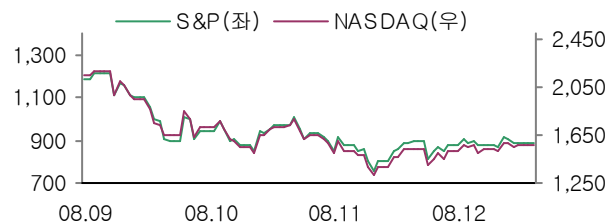
미 정부는 12월과 1월 GM과 포드에 각각 94억달러, 40억달러를 지원하고 내년 2월 4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약속. 하지만 내년 2월 17일까지 구조조정 방안 제출을 조건으로 제시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579.11	-0.30	-0.59	-0.65	7.28	-22.15	-35.23
S&P(좌)	887.88	0.29	0.93	1.35	10.08	-26.41	-39.19
NASDAQ(우)	1,564.32	0.77	1.53	3.64	12.83	-28.87	-40.76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